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이승재 영화평론가

“천만 영화 비결 소통·공감...사람 움직이는 힘은 감정”

구성원 눈높이 넘어서는 언어·변화 이끄는 영향력 강조
“정답보다 질문”...생각 확장하는 조직 운영 필요성 제시

“천만 관객을 만든 힘은 결국 ‘소통과 공감’입니다. 리더십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2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에서 ‘천만 영화로 살펴보는 리더십,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평론가는 한국 영화가 ‘영화강국’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천만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관객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시대를 반영한다”며 “리더 역시 구성원의 감정과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보여주는 방식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면서 “반부적극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십에서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평론가는 천만 영화의 공통 요소로 ‘진정성’을 꼽았다.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넘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야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리더라면 구성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진심이 담긴 메시지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영화 속 명대사를 통해 소통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 대사나 ‘제리 맥과이어’의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한다”는 대사를 언급하며 “한 문장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리더의 언어 역시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율리 “리더십은 논리 이전에 감정의 영역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2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천만영화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말하되, 그 기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관계 형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천만 영화의 또다른 공통 점으로 ‘질문을 던지는 서사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

는 극장에서 끝나지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다”며 “리더는 구성원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을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남들이 보지못한 발견하지 못한 것, 알지만 깨닫지 못한 것을 끌어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면서 “이는 결국 통찰

과 관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제임스 캐머런, 크리스토퍼 놀란 등 세계적 감독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 평론가는 이들의 도전과 혁신을 꼽으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리더에게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결국 사람을 다루는 문제는 이해와 애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조직의 성과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강연이 소통 방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은정 디지털카페581 대표.

이은정 대표 “어르신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

‘디지털카페581’ 무안 경로당 30곳에 꾸준한 나눔 실천
기부·나눔 이어가며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 자리매김

무안 운남면의 작은 디지털 가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카페581’의 이야기가 지역사회 발전의 울림을 주고 있다.

디지털카페581은 지역 내 3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번의 이벤트가 아닌, 시간을 들여 이어가는 ‘지속적인 나눔’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지난해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을 직접 전달했고, 올해는 피자 나눔까지 계획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단순한 음식 전달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더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은정 디지털카페581 대표는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는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된 진심이 읽힌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따뜻하다.

한 주민은 “30곳이 넘는 경로당을 행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진심이 느껴진다”며 “이런 나눔이아말로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힘이다”고 전했다.

디지털카페581은 앞으로도 기부와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이어가는 선행이 지역을 밝고 따뜻하게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안=이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어르신-손주 함께하는 ‘성인과학문화교실’ 성료 국립광주과학관, 천체관람·SI 활용 등 진행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규)은 22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성인 과학문화교실 - 손주에게 알려주고 싶은 과학’ 1회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주 동구 푸른학당과 서구 시영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관 본관 전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중 최고령자는 93세 어르신이라서 눈길을 모았다.

어르신들은 신나는 댄스 로봇과 ‘찌릿찌릿 신기한 과학 실험쇼’를 관람한 뒤, 조를 나눠 천체투영관에서 영상 시청과 함께 계절 별자리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스마트 아이디어실로 이동해 ‘인공지능(AI) 활용 그림그리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과학관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제작한 그림 작품은 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규)은 22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성인 과학문화교실 - 손주에게 알려주고 싶은 과학’ 1회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망자에 한해 국립광주과학관이 주최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창작 경진대회’에 현장 접수와 출품이 가능하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조혜민 연구원은 “어르신들이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과학기술을 즐겁게 체험하며 손주들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드려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형 중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을 찾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경제진흥원, 목포지역 어르신 700명 배식 봉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이 목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22일~23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을 찾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양일간 각각 15명씩 총 3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600~700명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지원, 식판 및 식기 전달, 식사 안내, 배식 후 식당 정리 등 현장 운영 전반을 함께 지원했다.

특히 이틀간 이어지는 연속 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이성희 원장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보해양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보해양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나선다

지역 소주 ‘여수바다’ 50만병에 ‘섬박람회’ 라벨 부착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보해양조와 손잡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23일 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최근 보해양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보해양조 최현준 영업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지역 대표 소주 ‘여수바다’ 제품에 박람회 홍보 라벨을 부착해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

하며, 여수 지역 내 약 50만병을 유통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 ‘여수밤바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으며,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수바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형이를 모티브로 삼아 바다를 지키자는 생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민기 기자 swg318@gwangnam.co.kr

영광군, 케이오시(주) 투자협약...대마산단 45억 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영광군은 최근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기업 케이오시(주)와 대마전자자동차 산업단지 내 9917.2㎡ 부지에 총 4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2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케이오시(주)는 대마전자자동차 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배터리 리팩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소형 배터리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가정용, 산업용 배터리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영광군은 최근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기업 케이오시(주)와 대마전자자동차 산업단지 내 9917.2㎡ 부지에 총 4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2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케이오시(주)는 대마전자자동차 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배터리 리팩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소형 배터리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가정용, 산업용 배터리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케이오시는 대마전자자동차 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 승인을 완료하는 등 내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